



나의 고향

동천 신상정

해와 달 정기받은
日月山 깊은계곡
솟아오른 물줄기
반변천을 이루고
펼쳐진 논과 밭에
오곡이 풍성한
황금물결 풍년들어
행복한 마을
송아지를 몰고 가는
긴머리 소녀가
홍얼대는 노래가락
다정도 하구나

석양이 붉으스레
하늘이 물들면
저녁연기 모락모락
정다운 마을에
잠자리도 흥에 겨워
춤을 추는 길
구리빛 농부는
가슴풀어 짓히고
쟁기지고 이라이라
사립문을 들어서니
처마밑에 삼사리가
꼬리쳐 반기네

강물줄기 따라가는
신작로 길은
뿌연 먼지 덮어쓰고
굴러가던 저버스가
반세기 전 나를 싣고
고향으로 갔었는데
아스팔트 포장길을
달리는 저버스는
지금의 나를 싣고
고향으로 간다네

마을길도 포장되고
전등불도 켜져 있어
옛 고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겨워라

* 상정(相琨)의 호는 동천(東泉), 보명(譜名)은 정철(琹澈), 판사공파 34세손이며, 1937년생으로 송도오백년가(松都五百年歌), 북경기행문(北京紀行文) 등 저서가 있다.